‘아시아문화마루’ 새롭게 다시 열립니다

지난 2010년 옛 전남도청 앞에 들어선 아시아문화마루가 해체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공단에 들어설 ‘소촌아트팩토리’에 새터를 잡고 레지던스 공간등으로 활용된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문화재단 ‘소촌아트팩토리’사업 일환
아문단 무상 양여… 소촌공단서 29개 컨테이너 새단장
예술가·방문객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2010년 8월 31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는 독특한 외양의 건물이 들어섰다. 검은색 컨테이너 박스를 조립해 만든 건물이었다. 건축면적 520㎡(158평), 연면적 1019㎡(309평)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덧붙여 만든 이 건물은 독일 쿤스트할레가 모델이 됐다. 2009년 11월 서울 강남에 플래툰 쿤스트할레가 문을 열었고 쿤스트 할레 광주가 두번째였다.

개관 전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름은 ‘아시아문화마루’.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모이는 장소, 교류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았다.

개관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쇼케이스 공간, 다양한 공연·전시·이벤트를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던 아시아문화마루는 지난 1월 운영이 중단됐다. 3월부터 문화마루 일대와 분수대를 중심으로 5·18민주평화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마루 건물이 광주시 광산구 소촌공단에 다시 닻을 내린다. 건물 소유주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무상 양여를 결정한 덕이다. 건물을 구성했던 29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해체된 뒤 리모델링을 통해 또 다른 복합문화시설로 변모한다.

아시아문화마루 재활용은 동구청 등이 다른 장소로 옮겨 운영을 고려해보기도 했으나 이전 비용과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였었다.

최근 광주시와 문화재단, 광산구청 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산업단지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아시아문화마루 건물 이전과 재활용이 탄력을 받았다. 컨테이너 박스는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국비와 시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소촌아트팩토리(S.A.F) 사업 일환으로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들어서게 된다.

문화재단과 광산구청 등은 이 건물을 예술가와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소촌공단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아카이브 공간,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는 복합공간, 레지던스 창작공간, 놀이와 예술이 결합된 뉴미디어룸(소출력 라디오 포함), 카페테리아, 아트숍 등으로 활용한다.

특히 레지던스 공간에서는 공단 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단 소식을 전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주민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분야 마을기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전 작업은 아시아문화마루 컨테이너 해체 및 이전 공사(공사 예정가 8800만원) 입찰을 진행하는 광주문화재단의 착오로 계획보다 늦춰지게됐다. .

재단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또는 금속구조물·창호업으로 규정한 입찰자격 중 금속구조물·창호업은 구조물 해체와 무관해 문제가 있다는 전문건설업체의 지적에 따라 입찰 자격을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만 제한해 26일 다시 공고를 냈다. 이에따라 3일낮 12시까지 입찰신청을 받아 업체를 결정한 후 곧바로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추진단이 5·18 광장 공사 일정과 관련, 해체작업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해 왔고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해 줘 긴급 입찰을 진행하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문화마루를 운영하게 될 광산구청 관계자는 “의미있는 건물을 재활용해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다”며 “아트 힐링공간 등으로 활용될 공단 관리사무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빈약한 광산구와 공단지역에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춘향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고백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공연 28일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정은영

지정남

이왕재

‘관소리 ‘춘향가’ 비틀어 보기.’

천한 기생의 딸로 태어난 미천한 춘향과 양반집 도련님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로나 알고 있던 ‘춘향전’이 새롭게 태어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극장이 제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는 ‘춘향가’ 속의 계급투쟁과 당대 여성에게 강요된 일부종사(一夫縱事) 주제를 전면에 드러내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춘향을 만나는 자리다. 28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등장인물은 재담꾼, 학자, 국극배우, 소리꾼, 고수 등 5명이다. 이들은 이야기로, 관소리로, 북소리 등 자신의 방식으로 춘향의 사랑과 욕망, 자기고백을 전달한다.

연출을 맡은 정은영씨는 영상, 사진, 설치,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전방위 예술가다. 최근에는 여성국극 공동체를 연구하는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이 프로젝트로 2013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참여한다.

마당놀이 배우로 ‘얼씨구 학당’ 등에 출연한 지정남씨가 재담꾼 역으로, 국악그룹 ‘황토제’ 대표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씨가 고수 역으로 출연한다.

또 ‘남해안 굿 연구’ 등을 집필한 서울과학기술대 강사 김형근씨가 학자 역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2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이계순·남은진씨가 소리꾼과 국극배우로 호흡을 맞춘다.

전석 무료. 예약 필수. 문의 062-410-36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우진 작 ‘Zebra’

‘十二支’

롯데갤러리 ‘열두 동물’전 3월18일까지

동물들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각각의 12띠를 지칭하는 동물들은 길흉화복을 점치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전통 미술 속에서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일부였던 동물들은 오늘날 작가들에게도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임원행 작 ‘亥’

광주 롯데갤러리가 청마의 해를 맞아 신년특별 전시로 ‘열두 동물 이야기’전을 준비했다. 전시는 3월18일까지. 이번 전시는 동물의 모습에서 소재를 찾은 작품들 중에서도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모은 전시다.

고기현, 권지은, 김동유, 김우진, 손현욱, 안준영, 오숙진, 임성희, 임원행, 장세일씨 등 10명의 참여작가들은 십이지 동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우진씨는 철골 구조 위에 플라스틱 의자들을 붙여가며 완성한 말 모양의 ‘Zebra’를 선보인다. 빨강, 파랑, 초록 등을 주로 사용해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손현욱씨는 젖소 형상을 한 ‘배변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문의 062-221-18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